

#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무 떨릴 때는 심호흡을 해 봐.
- ② 말할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해 봐.
- ③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을 찾아봐.
- ④ 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해 봐.

2. 다음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완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간호사가 장래 희망인 나는 진로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병원의 간호사님께 미리 연락드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간호사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아서 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간호사님의 나이, 사는 곳 등 엉뚱한 질문만 하고 말았다.

- ① 면담 대상자를 미리 정한다.
- ② 면담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다.
- ③ 적절한 면담 장소를 선정한다.
- ④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을 준비한다.

3. 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① 꽃                      ② 밖                      ③ 입                      ④ 팔

4.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에 해당하는 것은?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낸다.  
 ○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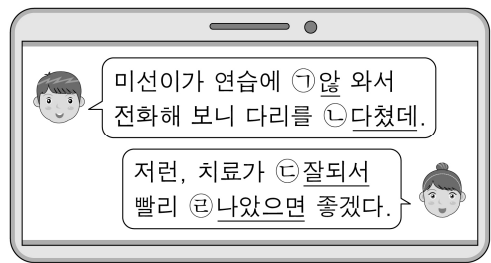
- ① 너                      ② 나무                      ③ 예쁘다                      ④ 어머니

5.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과 같은 것은?

아기가 ㉠ 방긋방긋 웃는다.

- ① 물이 얼음이 되었다.
- ② 친구가 빨리 달린다.
- ③ 동생이 새 신발을 샀다.
- ④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린다.

6. ㉠~㉣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7.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 또는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 ① 구름                      ② 육지
- ③ 체온계                      ④ 바이올린

8.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세종대왕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획의 원리로 창제된 글자에는 ㉠                     이 있다.

- ① ㄴ                      ② ㅆ                      ③ ㅇ                      ④ ㅋ

9. 다음 개요에서 ㉠에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중간	1. 머리카락의 정의 2. 머리카락의 구조 3. 머리카락의 기능 ..... ㉠
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머리카락

- ① 개인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름.
- ②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축모로 나뉨.
- ③ 두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줌.
- ④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구성되어 있음.

10.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옥의 재료는 나무, 흙, 돌 같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집이다. 옛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았고 집을 짓는 재료를 지나치게 ㉡ 다듬지 않았다. ㉢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 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집을 살아 있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 조상들에 생각이 한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 ① ㉠: 문장 호응을 고려하여 ‘한옥은’으로 고친다.
- ② ㉡: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다듬어지지’로 고친다.
- ③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조사의 쓰임에 맞도록 ‘조상들의’로 바꾼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고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지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헝하게<sup>1)</sup>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리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sup>2)</sup>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sup>3)</sup>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sup>4)</sup>를 얻어 ㉤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신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날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

1) 헝하게: 지체하지 않고 매우 빨리 가는 모양  
2) 얼병이: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  
3)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4) 배재: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

11.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다.
- ②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 ③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려 준다.
- ④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제시한다.

12. ㉡에 나타난 ‘점순’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쁨      ② 분함      ③ 고마움      ④ 지루함

13.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나’에 대한 ‘점순’의 애정과 관심
  - ‘나’와 ‘점순’이 갈등하게 되는 계기
- ① ㉠      ② ㉡      ③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A]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순된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문답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5. ㉠~㉣ 중 함축적 의미가 밀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발표되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6.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려움
- ② 부끄러움
- ③ 만족스러움
- ④ 정성스러움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 놓고 의논했다.  
 “함경 감사가 탐관오리 짓을 하며 기름을 짜듯 착취를 일삼으니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더 이상 그대로 두고 지켜볼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나의 지휘대로 움직여라.”

길동은 부하들에게 계책을 일러 주고 각자 따로 움직여서 아무 날 밤에 아무 곳에서 만나기로 기약했다. ㉠ 그리고는 그날 밤이 되자 성의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중간 줄거리] 백성들이 모두 나와 불길을 잡을 때 길동의 무리는 돈과 곡식, 무기를 훔쳐 달아났다.

함경 감사는 홍길동이 감영<sup>1)</sup>을 털었음을 깨닫고 군사를 모아 뒤를 쫓기 시작했다. ㉡ 길동은 날이 썰 즈음에 부하들과 함께 둔갑법<sup>2)</sup>과 축지법을 써서 소굴로 돌아왔다. 함경 감영의 돈과 곡식을 많이 훔쳤으니, 행여 길에서 잡힐 수도 있다고 염려해서였다.

㉢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아 놓고 의논했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의 재물을 빼앗고, 함경 감영의 돈과 곡식을 훔쳐 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 게다가 감영 곳곳에 내 이름을 붙이고는 찾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듯하다. 이에 ㉤ 대비책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내 재주를 지켜보아라.”

말을 마치자마자 길동은 풀로 허수아비 일곱을 만들더니, 주문을 외우고 혼백을 붙여넣었다. 그러자 일곱 명의 길동이 새로 생겨나서 한곳에 모이더니 한꺼번에 뿔내며 크게 소리를 치고 야단스럽게 지껄이는 것이 아닌가. 부하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덟 길동이 조선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서 각각 부하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다니니, 그중 어디에 진짜 길동이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 허균, 『홍길동전』 -

1) 감영: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2) 둔갑법: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술법

17. 윗글에 나타난 사회적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 ②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 ③ 탐관오리의 횡포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다.
- ④ 물자가 풍족하여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18.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19.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함경 감영으로 가서 죄를 자백함.
- ②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줌.
- ③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밤에만 다님.
- ④ 가짜 길동들을 만들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함.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 먼저,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말한다. 사과를 먹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자.

사과를 한 입 베어 문다. → 잘게 부서진 사과 조각들을 혀로 이리저리 섞으면서 부수는 걸 돕는다. → 잘게 부서진 사과 조각을 꿀꺽 삼킨다. → 사과 조각은 위를 거쳐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고, 장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사과 조각을 다진다.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바로 ㉠ 소화라 한다.

이와 반대로 ㉡ 화학적 소화란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를 이용해 물질의 성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소화 효소는 소화 기관에서 분비되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인데, 입에서는 침, 위에서는 펩신, 이자에서는 트립신 등이 분비된다.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몸의 각 기관에 골고루 보내는 것이다.

- 남중영, 「설탕 중독, 노예가 되어 버린 혀」-

20.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에서 ‘언니’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생: 효소, 이자, 펩신 등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언니: \_\_\_\_\_

- 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어 봐.
- ② 참고 자료를 읽으며 배경지식을 넓혀 봐.
- ③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봐.
- ④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본 뒤 사전에서 확인해 봐.

2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계적
- ② 부분적
- ③ 전체적
- ④ 화학적

22. ㉡과 유사한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먼지와 함께 굳어 모공 안에 쌓이게 된다.
- ②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나뉘고, 동물은 다시 절지동물, 연체동물, 척추동물로 나뉜다.
- ③ 갯벌이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에 펼쳐진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말한다.
- ④ 남극은 거대한 얼음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북극은 거대한 얼음 바다로 되어 있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1989년 당선된 미셸 느와르 시장은 선거 ㉠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 예술 작품으로 바꿔 놓았다. 이 계획은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와 국제회의 도시로 ㉡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도시의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깊이 없고 ㉢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강조할 곳,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조명을 최소화으로 줄이는 등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진숙, 「밤이 아름다운 도시」-

2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 ② 관련된 속담을 사용하였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④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24.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명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② 도시 경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 ③ 야간 조명은 밝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 ④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를 꾸미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개인적 다짐이나 목표
- ② ㉡: 어떤 대상이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섬.
- ③ ㉢: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음.
- ④ ㉣: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